

전문가양성을 위한 직무관찰식 인턴십 시행연구*

- 문헌정보학 전공사례 -

A Case Study of Job-Shadowing Internship Program for Information Specialists

유 사 라(Sarah Yoo)**

초 록

본 연구는 학부생의 현장실습의 어려움과 실습기관 실무자들의 인턴생 교육의 부담 등의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직무관찰식 인턴십을 시행하고 인턴생들이 인식하는 효과성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실험 사례연구이다. 제안된 두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인턴십의 효과와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직무관찰식 인턴십의 효과에 대한 학생인식(수강자의 71%)은 긍정적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인턴십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주는 영향은 시행 전후 차이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미비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직무관찰 인턴십 실습은 담당교수로부터 사전에 체계적인 인턴십 교육과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실습기관 실무자의 현장수요가 반영된 인턴 실습 지침이 마련되어야 PEP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교육으로서의 인턴십 실습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wo analysis: direct 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internship practicum, differenc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case study is to find out the practical problems of Internship education as a field-study of LIS by applying Job-Shadowing Internship methods. The results reveal that 71% of interns responded the positive effects of Job-Shadowing, but the effects to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① systematic pre-instruction and orientation from the department are the critical factor of internship, ② practicum guidelines(PEP), which is provid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tasks in internship institutions is the another important factor, and finally, ③ tool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ship is required for LIS practicum major course development.

키워드: 인턴십, 직무관찰식 인턴십, 전문직 도제, 도서관사서, 정보전문가 교육, 현장실습프로그램(PEP), 현장경험, (전공)전문가과정, 실습훈련

Internship, Job-Shadowing Internship, Apprenticeship, Librarian-ship, Education of Information Specialist, PEP(Practical Engagement Program), Field-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Practical Training

* 이 논문은 2010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ryoo@swu.ac.kr)

논문접수일자 : 2012년 3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3월 21일

1. 서론

국내 학부중심 전공교육은 대학과 지역산업체 그리고 정부 간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전공분야마다 차이는 있으나 점차 실질적인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교육의 발전은 이러한 최근 교육계 발전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을 학부과정의 이론교육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진로결정이나 취업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취업할 미래 현장에 학생 스스로가 노출됨으로써 전공분야에 대한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인턴십 실습은 전공필수의 성격을 갖는다.

문헌정보학 분야 교과목으로 오랜 시간 여러 대학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사서실습은 대개의 경우, 졸업직전 도서관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도서관 업무 중 특정범위 안에서 할당 내지는 배정된 업무만을 경험함으로써 업무 연습의 기회를 갖는 제한적 범위의 기술 훈련의 성격이 크다. 사서실습과 달리 인턴십 실습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이나 자료실 등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며 학부과정에서 선택한 기관에서 실무경험 기회를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전공 실습교과목(Practical Engagement Program)이다. 더욱이 국내 사범대학 졸업자들과의 교직 취업경쟁의 현실로 교직이수 학생 중 일부만 사서교사 교생으로 제한된 실습기회를 갖는 문제에 인턴십 전공교과목 개설은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인턴십 관련연구는 오히려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제 대학에서 인턴십 시행현황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인턴십 교과목을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으로 개설하고 기관 인턴십을 시행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안했다.

- 연구문제 1: 전공 교과목으로 직무관찰식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식한 효과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전공 인턴십 수행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2. 선행연구 검토

대학의 학부생이 전공분야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공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산업계나 실무현장의 수요에 전략적으로 집중된 교육만을 위해 대학교육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전공이론지식을 등한시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전공 훈련과 교육의 병행 방식을 통해 고용보다는 훈련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인턴십 즉 현장실습이며 최근 대학에서 강조되는 산학협력의 한 유형이라 하겠다(권장우, 양해봉, 이증만 2009).

1900년대 초기에 나타난 인턴십은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의 전공분야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점차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이어 스스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력 개발과 자기학습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왔다(김근중 2006).

2.1 산학협력과 인턴십의 기능(효과성) 및 필요성

인턴십 개념이 태동하고 100년 이상 시행되어 온 현재,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서 인턴십의 개념이나 시행 방식 측면에 개선의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인턴십 교육을 위한 주요 전략이나 결론으로 제시한 최신의 연구(박진옥, 김홍범 2011)에서는 대학과 같은 전공 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다양한 인턴십 수행기관을 편중되지 않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최신 산업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를 활용한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전공 교과 개정을 과감히 제안하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의 지식을 최종 수요자인 현장산업계에 신속하고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배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이낙선 2011)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산학 협력 차원의 인턴십 활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전공교육으로 인턴십 시행에 대한 관심은 인턴십 수행 중 학생들에게 보이는 업무상황이나 현장 실무에 대한 직접 관찰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크게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기능하고 있다는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중만 2009).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공교육에서 사서실습을 비롯한 실습경험(Field Experience)을 통한 교육은 듀이에 의해 컬럼비아대학에 도서관학부 전공이 개설되던 1887년부터 이미 중요한 전공교육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1900년대에 윌리엄슨 리포트라는 도서관 직원의 훈련에 대한

보고서에도 서무직 업무와 정보전문직 업무와의 구별을 두고 정보전문가의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문가 과정(Professional Experience)으로서의 훈련을 권고하고 있다(남태우 1995). 도서관 조직 밖의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계에 관한 전공교육이 강조되었던 195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현장훈련(Practical Training)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된 이후 현재까지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중요한 전공교육의 요건으로 주지되어 왔다.

현재에도 국내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에서 과거만큼 실습교육이 전공이론교육과 병행되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용역과제 보고서(2011)에 따르면 문헌정보학 현장수요에 가장 높은 전공과목이 사서실습이며 문헌정보학 특성상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서실습과 현장답사의 교육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공교육으로 시행되는 실습교육과 보고서나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권고안 간의 괴리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 제시는 미비한 실정이다.

2.2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인턴십 교과개설과 시행 현황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 최근의 한 연구(김순희 2009)로는 대학의 기록관리 교육 과정에서의 업무능력 배양책에 관한 것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비교하며 인턴십을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언급은 했으나 실습과목, 실무실습, 기록관리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시

행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공 인턴십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 경험적 내용은 없었다.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정보자원이나 기록관리 인턴십을 교과로 시행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대학원이나 박물관학의 인턴십 교과목이다. 더욱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최근 들어 정보자료 문화자료에 대한 자원 기록관리 인턴십 경험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공과 무관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선민 2010).

본 연구에 앞서 문헌정보학 전공의 실습교과 파악을 위해 국내 문헌정보학 개설 대학의 현황을 2011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관련 주제 기존 연구와 통계, 그리고 전국 문헌정보학과 개설대학 학과 사무실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했다.

2011년 12월 조사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년제 대학의 인턴십 시행 기관은 총 6개 대학으로 전체 34대학의 17.6%인 일부대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인턴십을 먼저 시작한 대학이 2002년부터 시작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인턴십 실습교과목이 전공교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이내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인턴십 교과목을 시행하고 있는 6개 대학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 4개, 지방 소재 대학 2개 대학이고 주로 학부교과목만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학과에서 전공필수이거나 졸업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단 1개 대학이며 특히 6개 대학 중 1개 대학은 2011년 작년에 인턴십 교과목을 오히려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도서관 실무실습으

로 교과를 진행하는 대학은 전체 20개 대학으로 기업체나 전문연구소 혹은 정보자료실보다 공공도서관을 주된 실습기관으로 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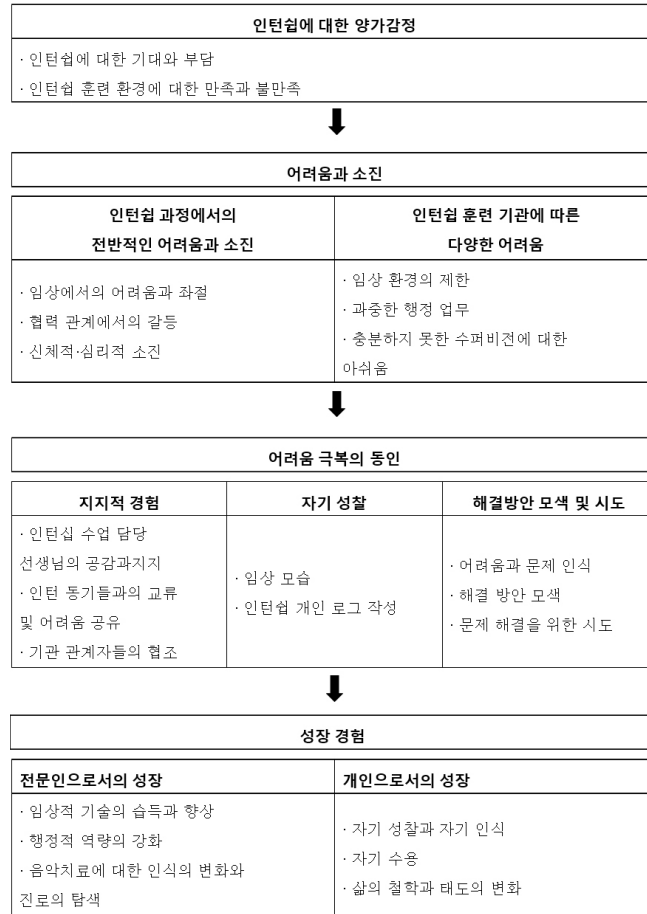
3.1 연구범위와 대상

현황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헌정보학 분야 전공교육에서 현장실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교과목 개설이나 시행이 저조하거나 폐지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예측될 수 있다. 인턴십 시행의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것이 현장 업무경험 전혀 없는 인턴 학생들의 부족한 전문성이다. 인턴기관 실무자들의 인턴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중의 부담도 인턴십 실습교육을 시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장에서의 인턴십의 어려움은 전공과 무관하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실습 부담이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학과 기관의 인턴십 상호 협약을 통한 직무관찰식 인턴십(Job-Shadowing)¹⁾을 하나의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습기관으로 부터 실습 업무의 배정 여부에 무관하게 인턴 학생이 관찰을 통한 실무자들의 일상과 현장상황, 그리고 이론을 넘어서 현실적인 전공교육과 이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전공자인 인턴학생이 기관에 파견되어 학점을 받되 현장 일상 업무를 관찰

1) 학부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장실습으로 의학이나 공학분야 전공실습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습개념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임.



〈그림 1〉 전체 맥락 속에서의 인턴십 경험
(출처: 이지연 2010)

하는 참여관찰자로서의 소임이 최우선적인 실습과제로 주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직무관찰식 인턴십 방식은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학부생에게 적합하다. 직장 경험이 없는 학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가 수시로 변경되어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업무 자체를 아예 배당받지 못해 현장학습에 불만을 갖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실습기간 중 나타나는 전공자로서

의 공황상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또 다른 잇점은 인턴기관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인턴생을 대상으로 직장업무의 준비해야 할 실무교육의 부담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무관찰식 인턴십의 중요한 시행요건이 있다. 참여관찰자의 역할과 그 목적이 사서 실습과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확실히 주지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 된다. 이를 위해 인턴십 실습을 앞두고

진행해야 하는 담당교수의 사전교육과 기존 사례 소개와 경험자 특강 등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 실무연습 목적인 사서실습과 직무관찰식 인턴십이 차별되는 부분은 각 기관의 수이나 요구에 따른 정보전문가 양성에 맞춤교육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기관에서 참여 관찰 실습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되 실무자의 현장업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주어진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도 수행하는 참여 관찰자로서 현장경험을 시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관찰식 인턴십 실습시행과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턴십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의 영향 여부 진단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현재 직무관찰식 인턴십 교과를 실습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 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사례로 조사했다.

조사된 학과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개설대학 중 인턴십 교과목이 전공필수로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학과이기에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학과는 전공 교과목으로 기존에 사서실습을 전공 실습교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학기 중 실시하는 실습과목 인정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즉 전공자 중 교직이수자에 한해서 사서교사로서 한정된 기관인 학교도서관에서만 교생실습이 이루어지며 학기 중 실습에 대해서만 학정 인정이 가능하다는 대학차원의 방침의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다수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여러 도서관 관중과 다양한 정보기관 등

에 기관을 선택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법으로 직무관찰식 인턴십 교과 개설 프로젝트가 하나의 전공 PEP 교과로 고안되었다. 실습현장 교육의 위기적 외부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실무현장경험의 기회부여라는 취지와 구별되기 위해 별도의 기관 인턴십 교과목을 개설하여 P/F의 3학점으로 실험적인 교과 운영을 진행해오고 있다.

3.2 교과목 개설 사전조사와 인턴십 시행내역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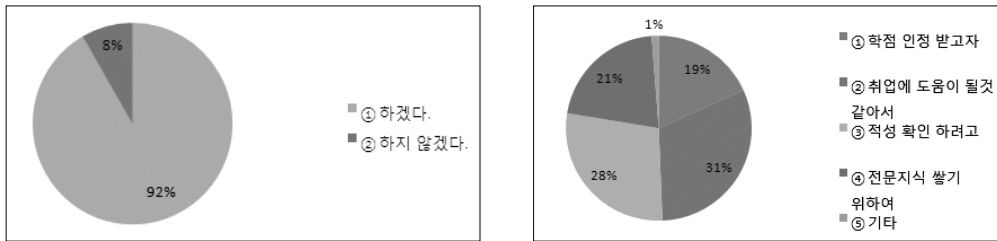
사례 학과는 2008년부터 교수진의 학과논의와 사전 학생 설문조사²⁾를 통해 전공교과목으로 기관 인턴십을 개설했고 2010년(2009년 겨울방학 시행)과 2011년(2011년 여름방학 시행)간 2년에 걸쳐 전공자 졸업필수 요건 과목으로 학점이수를 독려하여 기관 인턴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 인턴십 교과목 개설 이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매우 다양했고 수강 학년에 대한 것도 학년 2학기 이후로 응답되었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인턴십 참여자는 전공 학부생 2학년 이상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공(복수전공 포함)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수강신청 순차에 따른 진행으로 학기 시작과 더불어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기말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 학기 종료와 더불어 시작되는 동계 및 하계방학 중 4주를 인턴십 기간으로 각각 설정하였고 학점은 4주 인턴기간 종료 후 맞는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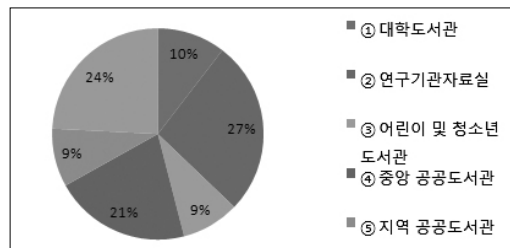
2) 기관 인턴십 교과목 개설 1년전 조사내역 <그림 2, 3>과 <표 1> 참조.

〈표 1〉 인턴십 교과목 개설에 학생 의견조사

학년	인턴십 내용이나 방식	희망 기관이나 도서관 관중	개설 찬성여부	기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수료자 증명서와 같은 형태와 연관되었으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기관이면 한다. 	적극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바랍니다. 실습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인턴십이 시행된다면 미리 공지가 되어 준비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인턴십 과목이 졸업 요건이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되고 다양한 기관에서 체험해보고 싶다. 실제 도움이 되는 기관에서 실습하고 싶다. 연구소에서 일해보고 싶다. 인턴십 기관범위가 넓으면 좋겠다. 	적극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도중 어려움에 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학과에서 인증서 발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4학년 이상, 복수/부전공 졸업생도 신청자격에 포함시켜 주면 한다. 기간이 4주 이상이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 즉 우리 학과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곳이면 한다. 전문도서관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일반회사/기업의 자료실이나 건축사무소 등과 같은 곳에서도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극찬성	



〈그림 2〉 사전 설문조사(기관 인턴십 참여의향과 목적)



〈그림 3〉 사전 설문조사(희망 인턴십 기관)

은 학기의 전공학점(3학점이수)으로 이수될 수 있도록 먼저 소속대학 교무처와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인턴십 시행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모든 공문서는 본

고에서는 생략되었다:

1. 인턴십 전공교과목 관련 학과규정에 준하여 시행결정(시행 1년 전)
2. 인턴 기관과의 협력체결(수강 신청자가 선정한 기관연락으로 진행)

- | | |
|--|--|
| <p>3. 직무관찰식(Job-Shadowing) 인턴십 오리엔테이션과 인턴지도(안) 개발(2010년~2011년 기간 중 보완 적용)</p> <p>4. 인턴십 평가 방법(기준)과 도구(설문 및 인터뷰) 선정(2010년~2011년)</p> <p>5. 인턴 시행직전 오리엔테이션 실시(인턴 시작 1주일 전)</p> <p>6. 인턴과정 학기말 보고 및 평가실시(매 학기말)</p> | <p>기말)</p> <p>7. 인턴십 수료증(해당 학과장 직인 공문서) 발급과 학점평가</p> <p>직무관찰식 인턴십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제공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실습에 대해 제공된 지침내용은 실습생(〈표 2〉 참조)과 실무자(〈표 3〉 참조)으로 구분되었다.</p> |
|--|--|

〈표 2〉 인턴실습생 지침사항

인턴 실습생 지침내용					
1. 활동내역서 작성은 가능한 한 아래의 내용으로 표를 작성하여 시간대에 해당하는 업무나 관찰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작성 길이는 제한 없음).					
일자	시간	업무 내용과 최종 결과물	의문점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배운 점(비판점)
12.22 (수)	오전 10~12	도서관 현황과악: 조사지와 정리표	자료실 배치 기준이 별도 있는가?	지역도서관과의 상호 협조는 아예 없어 보임.	각 업무 영역에 특징이 생각보다 확실함.
·	·	·	·	·	·
·	·	·	·	·	·
2. 일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되 개인의 실명이나 직책은 익명으로 하며 업무나 기관의 대외비 사항은 피해 본인이 모니터링하는 관점으로 기록한다.					
5. 참여하는 공동(칩프로젝트)작업이나 개별 작업은 완료시간이나 기간 확인한 후 시행하며 반드시 현장 실무담당자 결재를 받도록 하되 중간 과정을 일자단위로 기록하도록 습관들인다.					
6.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질문을 만들고 자신의 개별학습으로 익히도록 한다.					
5. 자신의 근무태도나 복장, 협동과 적극적인 자세 등에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한다.					
3. 업무내용의 기록할 때는 내역 작성표를 기준으로 하되 전공 이론과 접목하려고 노력하되 현장과 이론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7. 특별히 기관에서 배당하는 업무가 없거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배정받더라도 현장을 경험하다는 관점으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8. 직원과의 상호 의사소통이나 무관심 등에 반응하지 말며 주어진 한정된 기간의 현장경험에서 자신이 배워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자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9. 예상하지 못한 업무(외근이나 현장조사)나 업무의 중단 등 계획과 다른 상황은 도전으로 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그 과정을 자신이 사진 찍듯이 참여 관찰하고 기록한다.					
10. 자신이 선택한 인턴십 현장의 실무자의 고충이나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관찰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해서 기록한다.					
11. 전시적이거나 가시적인 내용을 피상적으로 기록한 활동내역서가 되지 않도록 기록할 때 마다 주의한다.					
12. 인턴 실습기관에 담당자들은 인턴 기간 중 지도 교수로 대치된 주체이며 향후 전공분야에서 자신의 인턴 기간 중 모든 흔적을 기억하는 평가자임을 인정한다.					

〈표 3〉 인턴기관 실무담당자 협조사항

인턴기관 실무(담당)자 협조사항:
1. 전문성이나 직장경험이 없는 학부생에게는 실습업무에 대한 현장 실무자로부터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기관이나 현장업무 등에 대한 대외비 사항은 반드시 사전 주지시켜 주십시오.
3. 과제로 부과된 실습 활동내역서의 관찰기록 작업에 대한 기관결재 생략으로 상세하고 솔직한 기록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언행이나 출퇴근 상황 등 실습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지시켜주기 바랍니다.
5. 실습생들은 전공에 대해 보충해야 할 내용과 현장이 요구하는 조건 및 준비사항에 대한 실무자의 현장수요에 대한 지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 팀 프로젝트나 사업 참여 등의 업무를 배당할 경우 가능한 실무자와 동반 참여구성이 되어 관찰로 보고 배우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배당은 실습기간 중에 한두 번 이상 다른 부서나 업무로 가능한 교체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8. 실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행정사항은 학과 담당교수와 직접 연락바랍니다.
9. 실습생의 잘못이나 실수는 시정해 주되 그런 경우는 대부분 멘토가 필요한 대상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개선되도록 지도바라며 이에 대한 결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10. 실습운영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점 등은 별도 기록으로 작성하여 해당학과 담당교수에게 사후 실습 평가서와 함께 우송바랍니다.
11. 귀하의 실무현장의 전문적 도움 없이는 인턴십 학습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표 4〉에서 정리된 것은 2010년 이후 4학기의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한 인턴십 교육에 참여한 내역이다. 인턴십 실습교과목을 자신 신청한 학생 수는 2년 동안 총 70명이었고 그중 68명이 실제 인턴십 실습을 마치고 학점을 이수했다. 2년간 인턴십 실습 학점이수자는 수강자격이 없는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생의 58.6%에 달했고 인턴십 교과목을 신청한 주된 학년은 3학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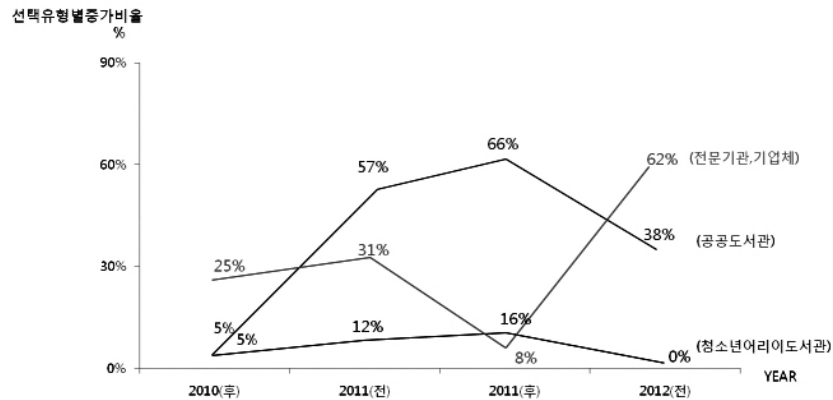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학과에서 연계시켜 준 인턴 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집계되었다.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정부기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기업체자료실, 연구소 산하 자료실,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어린이 도서관(사서교사

교생실습 기관인 학교도서관 제외) 등이다. 실습 기관 중 몇 곳은 지속적으로 매 학기 신청되었기에 중복 기관은 총수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인턴십 신청 학생들이 신청한 실습기관의 선택 성향은 처음 두 학기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선택한 반면, 마지막 학기에는 다양한 기관으로 점차 선택 유형의 폭이 넓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 도서관은 유사한 추세로 조금씩 감소한 반면, 정부산하 기관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기업체나 연구소 자료실 등이 포함되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4〉는 기관 인턴십을 통한 다양한 기관의 실무현장 경험하도록 하는 전공교육의 원래 취지에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 학기별 인턴쉽 수강신청자 및 참여자 수³⁾

시행 년도	인턴기간	수강 신청 수	인턴 참여기관 수	인턴기관 유형	인턴쉽 수강 학년	학점 이수
2009_1학기 ~ 2009_2학기	사전조사 및 협약체결 기간					
20100622 ~ 20100831	4주간	20	4	전문기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2, 3, 4 학년	3
20101222 ~ 20110113	4주간	26	7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청소년도서관	2, 3, 4 학년	3
20110627 ~ 20110823	4주간	24	9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전문기관, 청소년도서관	2, 3 학년	3
20120101 ~ 20120131	4주간	8	4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기업체자료실, 연구소 전문기관	2, 3 학년	3
3학기	회당 4주간	68	24			



〈그림 4〉 인턴쉽 신청 학생들의 기관 선택유형 변화

4. 자료수집과 측정도구

4학기에 걸쳐 정규 전공교과로 직무관찰식 인턴쉽을 학부생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는 매학기 ① 인턴기관으로부터 우편 배송된 인턴생 평가서와 ② 개인 학부생의 인턴 실습일지, 그리

고 ③ 학기말 보고발표(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인턴수행 후 해답제시)와 ④ 사후평가 설문응답지(진로성숙도 평가 포함) 등으로 수합되었다. 제안된 연구범위에 따라 상기 자료 중 분석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실습 사후에 기말 보고발표 내용과 사후평가 설문 응

3) 인턴쉽 초기를 제외한 바탕색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진로성숙도가 측정되었음.

답지이며, 학기마다 수집되고 정리된 후 4학기 이후 통합적으로 같이 분석되었다.⁴⁾

사후 평가를 위한 설문 내용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은 1항: 인턴십 교과목 사후 평가, 2항: 인턴십 교과과목의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 3항⁵⁾: 진로 성숙도 평가서,⁶⁾ 4항: 인턴십 운영여건 등으로 구성되었다.

4.1 인턴 학부생 관점에서 인식한 인턴십 효과성 및 문제점

인턴십 관련 기존연구들에서 언급된 여러 효과 측정 중에서 직무관찰식 인턴십 경험에 부합된 내용들을 선정하여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효과성 인식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질문은 8가지 구분된 내용으로

<표 5> 인턴십 효과성 및 문제점 측정내용⁷⁾

조사 측정 범위		질문 항목의 측정내용
문제점 측정	제도 및 규정	희망 기관으로의 배정
		희망 인턴업무 수행여부
		인턴 기간의 적절성
		인턴 학점의 적절성
		인턴실습 시기의 적절성
		인턴 기관 부서 배치 공정성
		인턴 기관 업무 할당 공정성
		인턴기관의 조직 분위기와 물리적 환경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기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인턴 대우/직원의 친절도)
		인턴기관 교육자의 준비와 능력
		인턴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체계성 및 내용 적합성
		인턴기관 교육 기간의 적절성
		인턴십 기간 중 교수 역할
		전공분야 인맥 형성에 도움
효과성 측정	프로그램	취업기회 발굴이나 진로선택 지원
		해당 기관의 유용한 전공 및 취업정보 습득
		새로운 실무능력 및 기술향상
		전공지식에 대한 향상
		사회 적응력 향상
		학점 및 학교성적 향상
		전공 교과목과의 연계성

4) 지면 관계로 설문지와 발표보고서 등은 생략함.

5) 이영은 외. 2008.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및 산업체의 대학생 인턴에 대한 태도평가. 『생활과학연구』, 12(1): 185-203의 자료의 도구를 편집한 것임.

6) 지면관계로 원문은 생략함.

7) 정규엽. 2005. 『산학협동에 대한 산학실습생의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료의 만족도 평가 도구를 참고로 개발한 구성함.

구성되었으며 항목이의 표현할 의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방형 질문도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48명(71%)이 인턴쉽 실습이 효과성이 있는 전공교과목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전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졸업 전후 진로결정, 전공 관련 직무이해, 현장경험 이해, 실무자들을 통한 인맥형성,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전문성 인식, 취업을 위한 준비의식, IT 자격증의 필요성 확인, 언어능력 관리에 대한 확인, 학점관리 전략의 필요성, 자신의 능력 진단, 강의 중 발표나 보고서 등에 대한 태도와 의식변화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열했다.

반면, 효과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20명(29%) 학생은 전공지식 향상이나 전공 교과목과 직결되는 전공내용의 직접적인 학습효과를 중점적으로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관찰식 인턴쉽 실습생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관점에서의 인식은 효과와 비효과에 대해 7:3의 비율로 진단되었다. 현장실습으로 인턴쉽 효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학생 스스로 전공이해를 할 수 있는 자가 학습의 기회였음을 실습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턴쉽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측정을 위해 구성된 제도측면에 대한 질문에는 39명(57%)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인턴쉽 기간이 부족하고 실습시기도 방학 기간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실습 기간과 시기에 대한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인간관계 측면의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전체 응답자 중 12명(17%)이 선택한 것으로 실습 기관의 실무자나 직원들이 인턴생

들에 대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습기간 내내 무관심한 반응을 받았을 때 현장 실무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런 결과는 실습현장 기관의 근무분위기나 조직문화를 읽어보고 직접 현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효과가 있음을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확실히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실습기관들과의 인턴학생에 대한 직원이나 실무자들의 우호적인 태도나 대우를 사전 협력으로 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학생들이 인턴쉽을 신청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연 1회 이상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모임으로 실제적인 정보전문가 실습교육에 실무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설문조사 중에 직무 관찰식 인턴쉽을 경험한 학생의 개별적 의견을 표현하도록 제시되었던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인턴쉽으로 경험한 기관의 문제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② 전공자로서 해결방안 제안한다면 어떤 것일 수 있는가?
- ③ 인턴쉽을 통해 경험한 바로 전공과목에서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인턴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설문 항목으로 제시된 응답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나타났다.

4.2 인턴시행 전후 진로성숙도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번째 연구문제로 참여관찰자의 인턴십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주는 영향의 여부를 측정했다. 학부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학생의 준비와 결정을 전공이론교육만으로 하는 한계가 크며 현실적인 전공이해를 실습교육으로 병행 진행하면서 중간점검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진로성숙도 측정이 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인턴십 교육의 목적이므로 전공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졸업 후 실무현장 적응력을 갖춘 정보전문가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분석을 시도했다.

진로성숙도는 인턴십 교과목 개설이 시작된 초기 2010년에는 측정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만 수집되었다. 그 이유는 시행 초기 인턴십 효과에 대한 측정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누적된 경험은 학과교수진도 학생들도 현장 실무진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한 후 분석을 진행하도록 고안한 방법이었다.

진로성숙도⁸⁾ 구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으로 총 48항목의 질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자가 진단하되 질문 항목의 내용에 학생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하여 수월하게 자신을 최대한 그대로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표 6〉 참조).

2011년부터는 인턴십 수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측정한 진로성숙도와 방학기간 실습을 마친 후 사후보고 발표 때에 측정한 성숙도를 비교 분석했다. 직무관찰식 인턴십 실습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주는 영향이 있었는지를 사전 사후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했다.

〈표 6〉 진로성숙도 평가질문(일부)

문항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	내 진로설계는 중요하다					
2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	내 진로는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도 내게 있다					
4	장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은 없어도 된다					
6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					
	.					
	.					

8) 박미정. 2009.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에서 교육계가 활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를 보완, 수정한 것임.

〈표 7〉 인턴십 전후 진로성숙도 차이 검증 결과

	인턴십 실습 전 (M)	인턴십 실습 후 (M)	t	p
진로성숙도	202.25	239.25	0.119	p > .05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연구가설(Ha: 인턴십 실습은 인턴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과 영가설(Ho: 인턴십 실습은 인턴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무관하다)로 설정되었다. 독립변인은 인턴십 실습(X)이며 종속변인은 인턴십을 수강하고 실습한 인턴생의 진로성숙도(Y)로 실습수행 전후에 나타나는 진로성숙도 측정치 실제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를 검증했다. 측정 데이터(N=32: 2011년 데이터)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통계 검증치(t=0.119, p > .05)는 양측검증(2Q)의 유의도 p < .05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영가설 기각이 불가능하였다(〈표 7〉 참조).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질문, 인턴십 경험이 주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은 수치상에서는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지시하는 것은 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턴십 실습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결과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성숙도나 혹은 다른 측정지표를 포함한 전공이해도 및 학습의욕 성취도 등 다양한 발전된 측정도구가 모니터 도구로 활용된다면 보다 정확한 효과측정이 될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인턴십 교과목을 문헌정보학 PEP(Practical Engagement Program) 형식의 전공교과로 개설하고 기관 인턴십을 시행하는 사례연구로서 실습하는 학생관점에서 인식하는 인턴십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보다 나은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5.1 요약

결과를 연구문제로 제시된 질문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전공 교과목으로 직무관찰식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턴십 교육의 효과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0년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된 인턴십 실습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9명(71%)이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과성을 나열하면 ① 전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② 졸업 전후 진로결정, ③ 전공 관련 직무이해, ④ 현장경험 이해, ⑤ 학점관리 전략의 필요성, ⑥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전문성 인식, ⑦ 취업을 위한 준비의식, ⑧ 자신의 능력 진단, ⑨ 언어능력 관리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한 태도와 의식변화 등이다.

인턴십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점 인식 측정으로 39명(전체 응답자의 57%)이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로 진단된 것은 제도측면에 속한 것으로 ① 인턴십 기간이 4주로 부족하고 실습 시기도 방학 기간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실습 기간과 시기에 대한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인식된 것은 인간관계 측면에 속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 중 12명(전체 응답자의 17%)이 ② 실습 기관의 실무자나 직원들의 인턴생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친절한 태도로 현장 실무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었다.

- 연구문제 2: 전공 인턴십 수행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4차에 걸쳐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턴십 실습을 실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측정된 진로성숙도는 차이는 나타났으나 그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부족했으며 인턴십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2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한계점과 제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으로부터 직접 우편 배달된 인턴십 실습 평가서와 학생들이 기록해서 제출한 실습 기록(일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문제로 제시한 것과 거리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양성 현장실습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같이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직무관찰식 방식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생뿐 만 아니라 실습 기관의 담당자에게도 현장수요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공동의 전공실습 지침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셋째, 학과에서 인턴십 실습을 심화전공자의 졸업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차원이 아닌 필수차원으로 시작했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2번 인턴십(2번 횟수 제한을 두었음)을 수강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1회 이상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평가나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심화 전공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인턴십 인식조사나 전공과 취업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학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전공성숙도와 인턴십 실습시행의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관찰식 인턴십 시행 사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충분하지 못한 표본크기와 성숙도 측정도구의 특성 그리고 1년간 2차 방학기간에 시행된 실습 사례인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직무관찰식 학부생 전공 인턴십이 전공성숙도에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전공 연구로 단일 학과의 실험사례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부생의 인턴십의 기존 경험을 박물관학이나 역사학 고고학 등 연계성이 있는 타 학문 분야와 접목하거나 혹은 실습지를 확대시켜 학생들의 인턴십 실습으로 인한 전공학습과 연결할 수 있다면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폭 넓은 취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로 문헌정보학 전공학과 및 대학이나 업무현장의 실무진 관점에서의 효과성과 문제점도 관찰, 분석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 다각도 관점에서의 효과

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인턴십 교육이 비로소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실무 적응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정보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영무. 2006. 대학의 해외인턴십을 위한 인터넷에 기초한 국제 NGO협력 네트워크 모델: CBMC와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15(3): 159-174.
- 권장우, 양해봉, 이중만. 2009. IT분야 산학협업 인턴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종합학술대회』, Session Vii-B: 교육콘텐츠/보건콘텐츠.
- 국립중앙도서관. 2011. 『전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갑수, 서정해, 한상영. 2000.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 관련시책의 현황과 과제』.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근중. 2006. 산업체 현장 실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현장실습 관련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2(3): 75-90.
- 김석호. 2008.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산학협력단 역량강화방안. 『대학교육』, 155호.
- 김순희. 2009. 기록관리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2-23.
- 김환식, 나승일. 2001.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태수. 2002.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13-26.
- 김태희, 이영남, 박홍현. 2001. 인턴십 만족도가 입사지원의향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8(4): 203-228.
- 남태우, 정준민. 1995.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집: 193-245.
- 박미정. 2009.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전공.
- 박선민. 2010. 『박물관 전문인력의 활용 활성화 연구: 학예사 인턴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과 미술관 박물관 경영전공.
- 박순복. 2005.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정보·기록관리학과.
- 박은정. 2010.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경영전공.
- 박진옥, 김홍범. 2011. 호텔관광 인턴십 학생들의 진로선택요인에 대한 인식과 진로 의사결정. 『관광레저연구』, 23(5): 131-149.
- 양재영. 2007. e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젝트형 멘토링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8(4): 21-42.
- 윤명희. 2006. 대학의 산학협동 인턴십 프로그램 평가. 『한국직업교육연구』, 25(3): 183-206.
- 이결재, 지진호. 2009. 호텔인턴십 참가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학교)지원이 인턴십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9): 359-369.
- 이낙선. 2011. 『산학정 협력에 관한 연구: IT 부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전공.
- 이영은, 이주영, 김아름. 2008.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및 산업체의 대학생 인턴에 대한 태도평가. 『생활과학연구논총』, 12(1): 185-203.
- 이중만. 2009. 산학협업 IT인턴십 전략유형별 사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7(2): 50-64.
- 이중만 외. 2009. CIPP모형을 활용한 IT분야 산학협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 457-467.
- 이지연. 2010. 『음악치료사의 인턴십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 정규엽. 2005. 『산학협동에 대한 산학실습생의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 정연경. 2005.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5-25.
- 정정미. 2010. 『기록관리학 대학원 실습교육 방안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